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K-SSRS: 대학생용)의 타당도와 유용성*

문 성 원[†]

우석대학교

본 연구는 Gresham 과 Elliot(1990)의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를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SSRS를 K-SSRS:대학생용으로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560명에게 K-SSRS:대학생용을 실시하였는데,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요인 분석 결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4 요인이 추출되었다. K-SSRS:대학생용의 4 요인은, 공감, 협동성, 자기조절, 주장성으로 명명되었다. K-SSRS:대학생용과 적응 지표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97명의 대학생에게 K-SSRS:대학생용과 더불어, 우울감 척도, 고독감 척도, 자아상 척도, 대학 생활 적응 척도를 함께 실시하였다. K-SSRS:대학생용에 의해 평가된 사회적 기술은 우울감과 고독감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에 반해, 자아상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국적 의미의 사회적 기술 척도 개발과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응용적 의미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사회적 기술, 신뢰도, 타당도, 요인분석, 예방

문성원은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부에 근무하고 있음.

* 이 논문의 일부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바 있음.

본 연구는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됨.

† 교신저자 : 문 성 원,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우석대학교 언론광고심리학부,
전화 : 063-290-1377 E-mail : drswmoon@hanmail.net

최근들어 심리학은 안팎으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심리학외적으로는 마침내 정신장애가 기타 다른 의학적 장애들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Goode, 2001; Pear, 2001, "Toward Mental health Parity", 2002), 심리학 내부에서는 정신장애의 치료에만 몰두하는, 즉, 결합과 손상의 학문을 뛰어넘어, 이제는 심리학이 사람들의 삶을 더욱 증진되게 하고 뛰어난 능력을 미리 발견해서 키워주는 이른바 강점의 학문이 되어야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Seligman(1998)은 결합과 손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둘 때, 지난 50년간 치료를 위해 그렇게 노력해온 많은 문제들을 미리 방지해낼 수 있다며, 21세기의 심리학은 "긍정적 사회 과학(positive social science)"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주장하였다. 1998년에는 예방이 미국심리학회 연차 학술 대회와 대표 주제로 채택되었다. 사실, 이미 미국의 노인 의료 보험은 그 보장 범위를 예방적 서비스에 관해서까지 확대한바 있다(Kaplan, 2000).

정신건강의 문제를 병리에서보다는 예방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위험한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하여줄 수 있는 요인, 즉 보호 요인의 강화를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유성경, 이소래, 2001; Kaplan, 2000). 특히, 사회적 기술은 위험한 사건을 겪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하여줄 수 있는 보호요인의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한다(Consortium on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1994). 따라서, 적응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을 찾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Catalano, Berglund, Ryan, Lonczak & Hawkins, 1998; Cavell, 1990; Greenberg, Domitrovich & Bumbarger, 2001; Katz, McClellan, Fuller & Walz, 1995).

그러나, 이처럼 사회적 기술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인 측면 모두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평가하는 도구와 관련된 부분의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개념이 서로 호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문항들이 사회적 기술 척도와 사회적 유능성 척도 모두에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예를 들어, Gresham과 Elliot(1990), Waksman(1985), Brown, Black과 Downs(1984)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명칭을, Walker와 McConell(1988)은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명칭을 각자가 개발한 도구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구성하고 있는 질문들은 비슷한 수준의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다. 필수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회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고 그 기술들을 적절히 수행하여 긍정적인 적응지표를 획득하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Cavell, 1990), 단순히 기술 항목을 묻는 기존의 대부분 설문지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명칭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수의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들은 개념 정의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심리 평가 도구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척도의 내용과 사용, 표준화 표본 및 기준, 점수/해석, 심리 측정적 속성의 네가지 기준을 이용하여 기존의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들에 대한 통합적 검토를 하고 있는 Demary 등(1995)의 연구를 보면, Waksman(1985)의

Waksman Social Skills Rating Scale(WSSRS)은 대표성이 매우 낮은 소수의 표본을 통해 광범위한 연령대를 대상으로한 척도를 구성하였는데다가 검사-재검사 신뢰도나 평정자간 신뢰도가 충분치 않고 타당도 정보도 부족하였다. 또한, Brown, Balck 과 Downs(1984)의 School Social Skills Rating Scale(S³)도 내적 일관성이나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가 매뉴얼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Stephens와 Arnold(1992)의 The Social Behavior Assessment Inventory(SBAI)도 역시 재검사 신뢰도나 구인 타당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기존의 사회적 기술 척도들의 대부분은 의학적 모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어느 정도있는가를 밝히는 것보다는 사회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 확인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Demary등(1995)의 연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는 Matson, Rotatori 와 Helsel(1983)의 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in Youngsters(MESSY)을 보더라도 적절한 사회적 행동과 부적절하고 충동적인 사회적 행동이라는 두 개의 요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발달 장애나 혹은 기타 다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수행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하면, Gresham과 Elliot(1990)의 Social Skill Rating System(SSRS)은 심리측정적 속성과 관련된 매우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수를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내적 일관성,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모두 우수하며,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SSRS는 긍정적 행동 혹은 친사회적 행동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SSRS는 이와같이 친사회적 행동중심의 사회적 기

술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 척도 또한 하위 척도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의 확인에 비중을 둔 의학적 모형과, 강점을 육성하는데 강조점을 둔 유능성 모형 모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Demary등(1995)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원을 통해서 평정 자료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개입과의 연결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꼽으며 기존의 사회적 기술 평가 도구중 가장 포괄적인 도구로 SSRS를 선정하였다.

Social Skills Rating System(SSRS)은 사회적 행동에 대한 총괄적인 중다평정자 체계로 Gresham과 Elliot (1990)이 개발하였다. 취학전 아동용, 아동용, 청소년용으로 나뉘어져 개발된 SSRS는 3종류(교사용, 부모용, 학생용 양식)의 평정 형태가 균형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술 평가 도구들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다평정자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SSRS가 기본적으로 생태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SSRS에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개입이 학생, 부모, 교사 모두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최대화될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SSRS는 사회적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이라는 단일 요인으로서만 평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술 영역들간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중다평정자 체계와 결합되어 고려될 경우 상당한 유용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SSRS Secondary Level의 3종류 양식중 학생용을 살펴보면,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 조절의 4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모용은 공감 대신 책임감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사용은 협동성, 주장성, 자기 조절로만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과 비교해서, 부모용이나 교

사용은 사회적 기술 척도 이외에도 문제 행동 척도가 추가되어 있어서 부모와 교사가 문제 행동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용 척도는 이밖에도, 학업 성취도 척도까지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SSRS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술 척도들이 주어진 항목의 사회적 기술을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평정하도록 한 것에 비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적응에 그 사회적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해서도 평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도 평정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행동적 기준과 기대를 상세히 보여주며(Walker & Rankin, 1983), 개입 프로그램을 위한 행동을 식별해낼 수 있게 해준다(Wolf, 1978).

따라서, SSRS는 선별, 분류, 개입 계획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하고, 또, 그밖에도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고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평가도구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SRS가 아무리 유용한 척도라고 하여도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SSRS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범위에 관한한 우리나라와 서구의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청소년용으로 개발된 도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대상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SSRS의 세 시리즈중의 하나인 SSRS Secondary Level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 SSRS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성원(미간행)은 SSRS Secondary Level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하여 K-SSRS:

중고등학생용의 타당화를 시도한바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SSRS Student Form(SSRS-S) Secondary Level을 번안하여 얻어낸 K-SSRS:대학생용의 타당도를 확립하고 이 결과가 개입과 관련하여 가지는 응용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를 개별화해서 타당화하고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의 독특한 발달적 지위와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집단이 학교기반 심리학적 서비스의 대상으로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절 미처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들을 다루느라 발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또한, 학교 시스템안에서는 전문적인 심리학적 서비스를 접하기가 거의 어려운 중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내 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나 조직에 기반을 두고 예방적인 관점의 심리학적 서비스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이나 현실성등의 측면에 있어서 대학내 학생생활연구소등의 기관은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선별, 분류, 개입 계획 모두에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SSRS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K-SSRS: 대학생용의 타당화를 위해 두 단계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 관련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온 SSRS를 한국의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여 그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 점에 유의하였다. 먼저, 요인분석과 관련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나, 사회과학의 경험적 자료에서는 “고유 요인=0”인 경

우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이순목, 1995), 본 연구에서는 전체 변량을 토대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주성분 분석 대신 공통요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기초 구조 회전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각 회전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에 관해서 이순목(1994)은 표본에서 요인들간의 상관관이 영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는데, 국내 요인 분석 연구들의 91.5%가 직교회전(varimax)을 유일한 회전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정남운(2001)과 박은영, 홍상황, 강덕규, 김영환(2001)의 연구에서도 이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실제로, SSRS-S Secondary Level의 요인간 상관관계수는 .15~.53에 달했다(Gresham & Elliot, 1990).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K-SSRS:대학생용의 요인들이 적응과 관련된 다른 심리적 구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서 K-SSRS:대학생용의 타당도에 관한 자료를 부가적으로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적응과 갖는 구체적 관련성 및 개입 관련 응용성에 대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Gresham과 Elliot(Gresham & Elliot, 1990)은 SSRS의 공존 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SSRS-S Secondary Level과 Achenbach와 Edelbrock(1987)의 Youth Self-Report(YSR), Piers(1984)의 Piers-Harris Children's Self-concept Scale(PHCSCS)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Gresham과 Elliot에 따르면, SSRS-S Secondary Level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들은 YSR의 문제 행동 척도와 거의 대부분 부적 상관을 맺고 있었으며, 특히 외현화 문제와의 상관 정도가 내현화 문제와의 상관 보다 더 높았다. SSRS-S Secondary Level은 PHCSCS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는데, 하위 척도중에서는 PHCSCS의 행동 척도나 지적/학교 지위와의 상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K-SSRS: 대학생용의 공존 타당도 입증을 위해 K-SSRS: 대학생용과 사회적 적응

지표들간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Cavell(1990)의 3요소 모형에 따르면,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기술, 사회적 수행, 사회적 적응이라는 세 가지 위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적 적응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행이, 그리고 사회적 수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술이 필수 조건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우수한 사회적 기술은 유능한 적응을 성취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Cavell(1990)은 사회적 적응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서적 지위, 사회적 지위, 관계적 지위등의 심리적 지위에 대한 측정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기술과 이들 지표들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일은, 현실적으로 K-SSRS:대학생용이 어떤 적응 지표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K-SSRS:대학생용의 특정 하위 요인이 특정 적응 지표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당히 정교하고 세분화된 개입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기존의 SSRS-S Secondary Level을 우리나라 대학생용으로 따로 분리해서 타당화를 하고자 한 만큼 적응 지표에는, 사회적 기술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우울(Antonuccio, Danton & Denelsky, 1995; Cole & Milstead, 1989; Coyne, 1976a, Lewinsohn, 1974), 고독감(Spitzberg & Hurt, 1987), 자아상(Cavell, 1990) 이외에도 대학생활 적응(Baker & Siryk, 1984)을 포함시켰다.

사회적 기술과 우울 사이에는 명백한 상관이 존재한다(Cole & Milstead, 1989). 그러나, 인과적 방향에 관해서는 어느 한 방향만으로 뚜렷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회적 기술의 결핍은 우울을 발생시키지만(Lewinsohn, 1974), 우울은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Antonuccio, Danton & Denelsky, 1995).

우울한 사람들은 대인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기술 결핍을 보여주며, 그 결과로 인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된다 (Coyne, 1976a). 따라서, K-SSRS:대학생용과 우울 척도 점수간의 유의한 상관이 밝혀진다면,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를 미리 예방해줄 수 있는 일차적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울로 인한 후속 문제들을 방지해줄 수 있는 이차적 예방 프로그램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기술과 고독감과의 관계에 대해서, Spizberg와 Hurt(1987)는 고독감의 변량중 34~42%는 사회적 기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고, King, Specht, Schultz와 Warr-Leeper(1997)등은 집단적인 사회적 기술 훈련이 고독감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Moon(2001)은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되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 고독감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Russell, Peplau 와 Cutrona(1980)는 UCLA 고독감 척도로 측정되는 고독감의 상당 부분은 성격이나 기분의 변산에 의해 설명되기도 하지만, 개정된 UCLA 고독감 척도는 성격 또는 기분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제외시킨 뒤에도 이 척도의 점수와 사회적 행동 사이의 상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했다.

Gresham과 Elliot(1990)이 SSRS-S Secondary Level 과 PHCSCS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SSRS의 공존 타당도를 확립하려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기술은 자아개념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Cavell(1990)은 사회적 적응 지표중의 하나로 정서적 지위를 들면서 자아 개념이 정서적 지위의 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Offer, Ostrov, Howard와 Dolan(1992)의 자아상 척도는 정상집단에 대한 일반화의 기준으로 임상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즉, 누

가 얼마나 일탈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는 정상 청소년의 현상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점은 SSRS가 기본적으로 결손을 진단해내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잘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K-SSRS:대학생용과 자아상 척도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학 입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행(移行)이다(Lapsley, Kenneth & Shadid, 1989).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행은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를 부과하게 된다(Tinto, 1982, 1993: Chemers, Hu & Garcia, 2001에서 재인용). 대학 시절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성을 획득해나가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해나간다(Chickering, 1969: Kenny & Denaldson, 1991에서 재인용). SSRS Secondary Level이 기본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척도가 아닌만큼 K-SSRS:대학생용의 타당화 과정에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척도와 의 상관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Baker와 Siryk(1984)의 대학 생활 적응 척도를 선택하였다.

연구 1 : K-SSRS:대학생용의 요인구조

방 법

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의 ㄱ 대학교, ㄴ 대학교, ㄷ 대학교, ㄹ 대학교 및 강원도내 ㅎ 대학교에 재학중인 560명이 참여하였다.

도구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 (Social Skill Rating System Student form; SSRS-S) Secondary Level

SSRS-S Secondary Level을 사용하였다. SSRS-S Secondary Level은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 조절의 4 요인으로 형성되어 있다. 협동성 요인에서는,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주장성 요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욕과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등의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공감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점에 대해서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자기 조절에서는 짓궂은 놀림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같은 갈등 상황에 나타나는 행동과, 교대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비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측정하게 된다. 실시시간은 약 20분이며, 원래는 표준화된 기준 준거 척도로 개발되어서, 백분위 점수가 산출되고, 행동 수준(평균 이상, 보통, 평균 이하)과 총 사회적 기술에 대한 측정 오차가 제시된다.

총 3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SSRS-S Secondary Level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빈도 평정과 중요도 평정의 두 가지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빈도 평정에서는, 문항에서 주어진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를 ‘결코 하지 않는(0)’, ‘간혹 하는(1)’, ‘매우 자주 하는(2)’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중요도 평정에서는 그 행동이 자신의 적응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0)’, ‘중요한(1)’, ‘결정적인(2)’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K-SSRS:대학생용의 요인구조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SSRS 타당화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빈도 평정만을 요인 분석에 사용하였

다. 중요도 평정은 사회적 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획득의 문제인지 혹은 수행의 문제인지를 고려하여 분화된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므로, SSRS의 타당화 과정에서는 중요도 평정에 대한 별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었다. 또한, SSRS에서는 3점 척도를 사용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3점 척도를 통해서 민감한 평정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K-SSRS:대학생용은 7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K-SSRS)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언어 국가에서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를 마친 학생과 연구자가 함께 SSRS-S Secondary Level의 원 문항을 한글로 번역하였고, 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학생이 이 문항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뒤, 국제교육부 소속의 외국인 교수 3인이 각 문항의 일치도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균 3점 미만의 평정을 받는 문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K-SSRS:대학생용의 문항을 얻어내었다.

절차 및 분석 방법

560명의 대상자들에게 K-SSRS:대학생용을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로부터 먼저 모든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여 상관이 낮게 나온 문항들이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항들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구한후 이를 이용하여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구조 추출 방법으로는 주축 분해법을, 변수의 공통분 추출 방법으로는 재분해를 통한 반복 추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사각회전 방법중 Direct Oblimin($\delta=0$)을 이용하였다. 요인의 수효는 누적 분산 비율과 스크리 검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결정하였다.

또한, 일차 요인분석에서 구해진 요인들에 기

저하는 상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차 요인 분석에서 구해진 요인들간의 상관 자료를 기초로 상위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 과정은 SPSS 10.0 windows를 이용하였다.

결 과

요인 분석에 앞서서 먼저 SSRS-S Secondary Level 을 구성하고 있는 39개의 문항들이 K-SSRS:대학생용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한 문항과 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 총점과의 상관을 반영하는 r_{it} 와, 전체 척도에서 한 문항이 제거되었을 경우의 α 계수를 살펴보았다. r_{it} 를 검토한 결과, 7번 문항 ($r_{it}=.10, p<.10$)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항이 총점과 .20 이상의 상관을 보였으며, 지나치게 높은 상관을 보여서 다중공선성이 우려되는 문항도 없었다($r_{it}=.20 \sim .50, p<.01$).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7번 문항의 경우, 7번 문항을 제거했을 경우의 α 계수($\alpha=.863$)가 척도 전체에 대한 α 계수($\alpha=.860$)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상관의 정도는 낮았지만 그대로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SSRS 39문항 전체의 상관계수 행렬 (부록 I)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K-SSRS:대학생용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r_{it})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료의 구조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인가를 알아보기위해서 Bartlett의 구형 검사와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Bartlett의 구형검사에서는 $X_{741} = 4937.90$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절성 검사 지수는 .83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K-SSRS: 대학생용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수정된 문항-총점 상관

문항	M	SD	r_{it}
1	4.39	1.62	.36
2	5.32	1.35	.43
3	4.23	1.70	.30
4	4.17	1.59	.40
5	5.32	1.21	.43
6	5.14	1.25	.46
7	3.31	1.73	.10
8	4.59	1.65	.34
9	5.89	1.24	.22
10	4.33	1.55	.34
11	4.64	1.60	.20
12	5.62	1.11	.36
13	5.46	1.59	.24
14	3.89	1.82	.24
15	4.06	1.66	.29
16	3.69	1.91	.22
17	4.70	1.65	.26
18	4.45	1.39	.50
19	4.43	1.68	.20
20	3.41	1.87	.34
21	5.91	1.10	.37
22	4.23	1.66	.34
23	5.10	1.45	.43
24	5.19	1.31	.48
25	5.82	1.20	.38
26	4.78	1.67	.30
27	4.67	1.44	.47
28	4.39	1.78	.34
29	5.76	1.09	.38
30	5.06	1.45	.33
31	3.91	1.46	.49
32	4.28	1.70	.38
33	4.28	1.74	.42
34	3.96	1.50	.43
35	5.02	1.34	.35
36	5.28	1.23	.35
37	4.57	1.48	.30
38	4.67	1.42	.45
39	5.13	1.37	.49

주. Valid N = 421, Alpha = .86, Average item mean = 4.69

요인 수효를 제한하지 않으니 총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부록 II). 39개의 문항에서 추출할 수 있는 요인의 수효로서 10개는 경제적이지만 못하므로 적절한 요인 수효의 결정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로, 요인을 하나씩 추가해서 뽑을 때마다 설명되는 분산의 누적퍼센트를 기준으로 요인 수효를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공통 요인 분석의 경우 전체 분산의 75-85% 정도가 설명되면 추가되는 퍼센트가 지극히 크지않는한 더 이상의 요인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Gorsuch, 1983; 이순목, 199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9개의 요인이 요인 수효의 상한값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개의 요인 또한 경제적이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스크리 검사의 결과를 고려하였다. 검사 결과, 5번째 요인부터는 고유치의 증가 정도가 크지 않아서 모두 4개의 요인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요인의 수효를 4개로 지정해서 다시 공통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축 분해법으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Direct Oblimin($\delta=0$) 방식으로 사각 회전하였다. 각 요인별 소속 문항의 결정에는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4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문항들을 선정한다는 것과 특정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요인에 귀속시킨다는 것이었다. SSRS에서는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 요인으로 간주하도록 했었지만, K-SSRS: 대학생용의 경우는 .3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 .40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더 적합한 문항이 선택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40의 기준을 택했다. 그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K-SSRS: 대학생용의 총 문항수는 27개였고, 4개 y인의 고유치의 총합은

12.22였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31.32%를 설명하였다. 4요인 27문항의 점수와 39문항으로 된 원 척도 점수의 상관은 $r=.90(p<.001)$ 로 높게 나타났다. 사각으로 회전된 K-SSRS: 대학생의 요인에 대한 구조 계수와 패턴 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K-SSRS: 대학생용의 각 요인별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들의 내용적 공통점을 살펴보고, 이를 SSRS-S Secondary Level의 요인구조와 비교하였다(표 3). 먼저, K-SSRS: 대학생용의 요인 1에 속한 9개의 문항은 모두 SSRS의 공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로,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관점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인 1을 공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 포함된 3개의 문항은 모두 SSRS-S Secondary Level의 협동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다. 그러나, SSRS의 협동성 요인이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등의 광범위한 협동 행동을 포괄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 K-SSRS: 대학생용의 요인 2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내는가와 관련된 경향이 있었다. 요인 2는 협동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에 포함된 7개의 문항중 6개는 SSRS의 자기 조절에 속하는 문항들이었고, 1개는 SSRS의 협동성에 속한 문항이었다. 대부분의 문항들이 부모님이나 어른 혹은 다른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차분히 잘 조절하고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인 3은 자기조절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에 포함된 8개의 문항중 7개는 SSRS의 주장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이었고, 나머지 1개는 공감에 해당하는 문항이었다. 전체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호감을 표현하는등, 주도적인 특성을 가진 행동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인 4는 주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2. 사각으로 회전된 K-SSRS:대학생용의 요인 구조(패턴) 계수

문항	1	2	3	4
5	.60(.58)	.17(-.05)	.21(.10)	.20(.05)
39	.59(.49)	.17(.08)	.05(-.10)	.44(.30)
12	.57(.59)	.11(-.06)	.15(.06)	.15(-.04)
24	.50(.39)	.08(-.02)	.13(-.02)	.50(.38)
29	.50(.46)	.14(.02)	.13(.02)	.25(.11)
21	.49(.45)	.24(.10)	.20(.09)	.13(-.02)
2	.49(.41)	.05(-.07)	.15(.06)	.41(.27)
8	.46(.42)	.07(-.02)	.03(-.07)	.29(.16)
25	.42(.35)	.00(-.09)	.10(.02)	.39(.28)
13	.17(-.01)	.77(.81)	.08(-.13)	-.03(-.01)
17	.10(-.13)	.76(.83)	.07(-.14)	.07(.13)
35	.37(.26)	.62(.52)	.26(.09)	-.07(-.16)
34	.17(.02)	.18(-.02)	.74(.73)	.15(.05)
22	.13(.03)	.18(.07)	.62(.61)	.06(-.03)
27	.37(.25)	.31(.10)	.61(.55)	.09(-.05)
32	.13(-.01)	.20(.06)	.57(.55)	.16(.10)
6	.40(.31)	.31(.12)	.53(.45)	.08(-.07)
18	.35(.21)	.29(.14)	.48(.39)	.23(.12)
10	.27(.21)	.10(-.07)	.47(.45)	.11(-.01)
4	.08(-.18)	-.03(-.02)	.16(.10)	.73(.78)
1	.22(.05)	-.04(-.04)	.03(-.04)	.62(.61)
38	.37(.21)	.05(.02)	.05(-.06)	.60(.54)
33	.12(-.11)	.07(.04)	.30(.25)	.55(.55)
20	.16(-.07)	-.03(-.03)	.11(.05)	.54(.54)
26	.10(-.08)	-.00(.09)	.10(.05)	.51(.54)
28	.29(.16)	.05(.03)	.01(-.08)	.48(.44)
23	.34(.18)	.15(.10)	.14(.03)	.47(.41)
고유치	6.22	2.95	1.75	1.30

K-SSRS: 대학생용에 이들 상호관련된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적인 일반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4의 하위 요인간 상관 행렬을 다시 요인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변량의 약 31.62%를 설명하였으며, 이 고차 요인에 대한 하위 척

도들의 요인 부하량은 각각 .76, .62, .47, .28로 나타났다.

표 4에는 또한 560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얻은, 27문항으로 된 K-SSRS:대학생용 전체 척도 및 하위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내적 합치도 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

표 3. K-SSRS: 대학생용의 요인별 문항 내용

K-SSRS 요인	문 항 내 용	SSRS 요인 ^주
요인 1	5.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혼란 사태에 있거나 혹은 슬퍼하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E
	39. 문제거리나 말다툼이 발생할 경우 그 일에 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E
	12.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스러운 마음을 가진다.	E
	24.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말로 표현을 한다.	E
	29. 친구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친구의 편이 된다.	E
	21.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듣는다.	E
	2.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훌륭해”, “멋있어”등 칭찬을 해준다.	E
	8. 나에게 골칫거리가 있을 경우 그것에 관해 친구에게 표현을 하고 도움을 구한다.	E
	25.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는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인사를 한다.	E
	13. 과제물을 제시간에 제출한다.	C
요인 2	17. 수업 시간안에 해야하는 과제나 기타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마친다.	C
	35.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C
요인 3	34. 부모님의 비난을 화내지 않고 받아들인다	S
	22. 부모님과과의 논쟁은 소란피우지 않고 조용히 마친다.	S
	27. 윗 어른이 나를 꾸중하실 때 불안해 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S
	32.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한다.	S
	6. 어른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는다.	C
	18. 나의 의견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한다.	S
10. 나의 의견이 어른들의 생각과 다른 경우 싸우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고 이를 표현한다.	S	
요인 4	4. 이성과의 만남에 자신이 있다.	A
	1. 친구를 쉽게 사귄다.	A
	38. 부탁을 들어달라고 친구에게 청한다.	A
	33. 이성이 나를 주의깊게 보아도 당황하지 않는다.	A
	20. 좋아하는 사람에게 데이트를 신청한다.	A
	26. 이성과 대화를 시작할 때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A
	28.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실을 말이나 감정 표현을 통해서 그 친구가 알게끔 한다.	E
	23. 이성에게 칭찬을 한다.	A

주. 원 척도에 속한 4 개 요인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A : assertion C : cooperation E : empathy S : self-control

표 4. K-SSRS:대학생용 전체 척도와 하위 척도들간의 상호 상관관계수 및 신뢰도

척도	요인				전체척도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α
	1	2	3	4					
요인1	1.00	.20**	.33**	.49**	.79**	9	5.41	.76	.78
요인2		1.00	.24**	.05	.40**	3	5.01	1.29	.77
요인3			1.00	.21**	.67**	7	4.46	1.00	.79
요인4				1.00	.75**	8	4.38	1.03	.78
전체척도					1.00	27	4.81	.66	.85

주. * $p < .05$ ** $p < .01$

합치도는 .80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77~.79의 범위에 있었다. Gresham과 Elliot (1990)이 .67~.83의 내적 합치도를 보고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K-SSRS: 대학생용은 유사한 정도의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 2 : K-SSRS: 대학생용 요인과 적응 지표와의 관계

방 법

대상

서울 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97명(남자 41명, 여자 55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20세($SD=2.03$)였다.

도구

한국판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K-SSRS)
대학생용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 연구 - 우울 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 : revised CES-D-K)

CES-D(Radloff, 1977)는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후군 (Depressive Symptomatology)의 역학적 연구를 하기위하여 미국 정신보건연구원 (NIMH)에서 1971년에 개발한 도구로 국내에서는 신승철등(1991)이 번안하고 요인분석 및 표준화하였다.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MMPI와 BDI등에서 추출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보고형 문항이다. 신승철등(1991)의 연구에서 반분 신뢰도는 0.84였다.

이 척도는 지역사회에서 우울증 환자를 일차적으로 탐색해내는데 유용한 도구이고, 간이검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우울진단의 아형들을 분별할 수는 없으나, 우울증후군의 유무나 정도는 알 수 있다. 현재의 우울 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게 되어 있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son, Shave & Wrightsman, 1991).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가치감, 무

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그리고 수면 장애등을 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응답자들은 지난 두 주일 동안에 어떻게 느끼거나 행동했는지 보고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답지는 4점 척도로서, 0. '전혀/거의 없었다(일주일중 0-1일 정도)', 1. '간혹 있었다(일주일중 1-2일정도)', 그리고, 3. '대부분 또는 거의 항상이었다(일주일중 5-7일 정도)'의 선택지가 있었다. 높은 점수일수록 우울증상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UCLA 고독감 척도(Loneliness Scale - Revised : LS)

이 척도는(Russell, Peplau & Cutrona, 1980) 현재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부적절감, 그리고 개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대인관계와 실제의 대인관계 사이의 차이에서 느끼게 되는 고독감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이다. 구체적으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우울감, 비판적이고 고립되어 자기 폐쇄적인 정도, 그리고 사교적이지 못하며 대인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정도 등을 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각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지 1. '전혀 없다'에서 4. '자주 있다'까지 4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는 것이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까지이고, 높은 점수는 스스로 지각하는 고독감이 높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민(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의 α 계수는 남자 청소년(283명)에 대해 .82, 여자 청소년(244명)에 대해서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자아상 척도 (Offer Self-Image Questionnaire-Revised : OSIQ)

Offer 자아상 척도는 Offer, Ostrov, Howard, 그리고 Dolan(1992)이 청소년들에게 실시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기보고형 객관적 성격검사이다. Offer등(1992)은 이 척도가 성인기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OSIQ는 총 12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문항들은 12개의 하위 구성 척도 - 정서 상태, 충동 통제, 정신 건강, 사회적 기능, 가족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 자신감, 자기-신뢰, 신체상, 성, 윤리적 가치, 이상주의 - 로 구분되며 10개의 중요한 하위 구성 척도 점수들을 합산하여 전체 자아상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각 문항에 대해서 1점 ('나를 가장 잘 나타내준다.')에서 6점 ('나를 전혀 나타내 주지 못한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OSIQ는 최근에 홍강의, 김봉석, 신민섭(1998)에 의해 한국판 검사로 표준화된 바 있는데, 당시의 신뢰도는 .46에서 .86까지 양호했다.

대학 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 SACQ)

이 척도는 Baker와 Stryk(1984)이 자기 보고를 통해 대학 생활에의 적응 정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고안한 설문지로서 67문항의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 조신권(1993)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문성원(1998)이 42 문항으로 축약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인-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일반적 적응, 학업적 적응으로 나뉘어 지는데, 개인적-정서적 적응 척도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문항 11개로 구성되었고, 사회적 적응 척도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적 적응 척도는 대학에 대한 애착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를 알아보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적응 척도는 대학의 교육적 학업적 요구와 관련된 구체적 적응을 알아보는 문항 6개와, 대학의 학업적 목표에 대한 전반적 몰입 정

도에 관한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성원 (1998)의 연구에서의 α 계수는 .93이었다.

절차 및 분석 방법

97명의 대학생들에게 K-SSRS: 대학생용과 우울 척도, 고독감 척도, 자아상 척도, 대학 생활 적응 척도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K-SSRS:대학생용의 총점 및 요인별 하위 척도의 점수를 계산하고 이 점수와 우울 척도, 고독감 척도, 자아상 척도, 대학 생활 적응 척도들의 상관 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술의 각 요인들과 적응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변인들의 효과를 상호통제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표 5에 K-SSRS:대학생용 전체 척도와 하위 척도들, 그리고 우울 척도, 고독감 척도, 자아상 척도, 대학 생활 적응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제시되

어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K-SSRS 전체 척도는 우울감($r=-.26, p<.05$) 및 고독감($r=-.52, p<.01$)과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상($r=.56, p<.001$)과 대학 생활 적응($r=.41, p<.001$)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K-SSRS:대학생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피험자는 그렇지 않은 피험자에 비해 우울감이나 고독감은 낮게 지각하고 자아상이나 대학 생활 적응 정도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SSRS:대학생용의 하위 요인과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감 요인은 자아상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해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협동성 요인은 고독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 조절 요인은 우울감과 고독감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상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장성 요인은 고독감과 부적 상관을, 자아상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K-SSRS:대학생용과 OSIQ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OSIQ 하위 척도들과의 상

표 5 . K-SSRS:대학생용 전체척도(27문항) 및 하위 척도들과 CES-D-K, LS, OSIQ, SACQ와의 상관관계

척도	K-SSRS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CES-D-K	LS	OSIQ	SACQ
K-SSRS	1.00	.79**	.37**	.65**	.75**	-.26*	-.52**	.60**	.41**
요인 1		1.00	.10	.33**	.55**	-.13	.06	.40**	.26*
요인 2			1.00	.22**	.00	-.06	-.27**	.11	.29**
요인 3				1.00	.16	-.35**	-.46**	.57**	.39**
요인 4					1.00	-.09	-.52**	.40**	.18 ⁺
CES-D-K						1.00	.46**	-.60**	.41**
LS							1.00	-.64**	-.51**
OSIQ								1.00	.71**
SACQ									1.00

주. N=97. 하위척도 1 = 공감, 2 = 협동성, 3 = 자기 조절, 4 = 주장성

* $p<.05$ ** $p<.01$

관을 구하였는데(부록 III), OSIQ 총점과 .57의 상관을 보인 K-SSRS:대학생용의 자기 조절 척도는 OSIQ의 모든 하위 척도에 걸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7\sim.57$). 공감 척도는 OSIQ 전체 척도와는 .40의 상관을 보였고, OSIQ의 하위 척도중, 자신감, 가족 기능, 윤리적 가치, 이상주의, 자기 신뢰, 사회적 기능, 정서 상태, 직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8\sim.58$), 협동성은 OSIQ 전체 척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윤리적 가치, 자기 신뢰, 직업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r=.23\sim.37$). OSIQ 총점과 .40의 상관을 보인 주장성은 정신 건강, 자신감, 가족 기능, 신체상, 성, 자기 신뢰, 정서 상태, 사회적 기능, 직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5\sim.47$).

K-SSRS:대학생용의 자기조절 척도는 SACQ의 개인-정서적 적응,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몰입)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상관($r=.27\sim.47$)을 보였다(부록 IV). K-SSRS:대학생용의 공감 척도는 SACQ의 사회적 적응과 일반적 적응에 대해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r=.22\sim.48$), K-SSRS:대학생용의 협동성 척도는 일반적 적응, 학업적 적응(요구). 학업적 적응(몰입)에 대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28\sim.36$). 마지막으로, K-SSRS:대학생용의 주장성 척도는 SACQ의 하위 척도중 사회적 적응과 .43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K-SSRS:대학생용의 하위 척도들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 하위 척도가 중요한 측정치들과 맺는 관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하위 척도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Watson & Biderman, 1993: 정남운, 2001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K-SSRS:대학생용의 네 하위 척도 모두를 독립 변인으로 하고, 우울감, 고독감, 자아상, 대학생활 적응을 각각 종속 변인

으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V, 부록 VI, 부록 VII, 부록 VIII). K-SSRS:대학생용의 공감 척도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이전에는 고독감과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자 고독감에 대해서 매우 유의한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공감 척도와 자아상 척도는 영차 상관의 경우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으나, 준부분 상관을 구하자 상관의 정도가 매우 낮아졌다. 자기 조절 척도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우울감에 대해서는 정적 상관을, 자아상과 대학 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장성 척도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고 나서 고독감과 자아상에 관하여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Gresham과 Elliot(1990)이 만든 SSRS를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그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56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K-SSRS:대학생용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하여 4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SSRS-S Secondary Level과 매우 유사한 요인 구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K-SSRS:대학생용에서 추출된 요인들 4개는 SSRS-S Secondary Level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감, 주장성, 자기 조절, 협동성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공감, 주장성, 자기조절 요인의 경우 SSRS-S Secondary Level의 문항들이 K-SSRS:대학생용에서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협동성 요인의 경우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항이 많이 축소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공감이나 주장성, 자기조절 요인이 어떤 문화에서든 혹은 어떤 연령대에서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인데 비해서, 협동성 요인은 사회문화적 가치나 맥락의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 구성원으로서 또는 학교라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협동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 협동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고려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협동성의 여러 범주중 학생으로서 학업 성취에 충실해야하는 면이 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K-SSRS:대학생용에서 협동성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모두 학업적 성취와 관련된 협동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하위 척도간 상관 행렬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회전하지 않은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변량의 31.6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반 요인이 K-SSRS:대학생용 각 하위 척도의 배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4 요인 27문항의 점수와 39문항으로 된 원척도 점수의 상관은 $r=.90(p<.01)$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7문항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이었고, 하위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7~.79의 범위에 있었다. 특히, SSRS-S Secondary Level의 문항중 대학생에게 실시하기에 다소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문항들은 요인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탈락이 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27문항으로 이루어진 K-SSRS:대학생용은 우리나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술 평정 도구로서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K-SSRS:대학생용의 공존 타당도 자료를 얻기 위해서, 9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는 K-SSRS:대학생용과 우울감 척도, 고독감 척도, 자아상 척도, 대학 생활 적응 척도 점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K-SSRS:대학생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일수록, 우울감과 고독감은 낮게 지각하고 있었고, 자아상과 대학 생활 적응은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SSRS:대학생용의 자기 조절 요인은 다른 요인들이 주는 영향을 배제했을 때 우울감, 자아상, 대학 생활 적응 모두와 매우 유의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뒷사람을 비롯한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를 잘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았고, 매우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대학 생활 적응 정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기 조절을 잘하는 것은 고독감과 무관했다. 단순 상관에서는 자기 조절과 고독감과의 상관도 유의했지만,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는 그 영향이 급격히 줄었다.

공감 요인은 단순 상관 결과만을 보았을 때는, 자아상, 대학 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자 고독감과의 상관 관계가 매우 유의해졌고, 대학 생활 적응과의 상관 관계는 의미가 없어졌다. 즉,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고독감 또한 낮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주장성은 고독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아상 및 대학 생활 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자, 고독감과 자아상과의 상관만 유의해졌다. 필요한 상황에서 부탁을 할 수 있거나 이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일수록 고독감은 낮았고 자아상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협동성은 단순 상관 결과를 보았을 때는 고독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

생활 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대학 생활 적응중에서도 일반적 적응, 학업적 적응(요구/몰입)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자 협동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척도가 없었다.

K-SSRS: 대학생용의 요인들과 관련된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개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함의를 남긴다. 사회적 기술의 어떤 요소를 훈련시키는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공감과 주장성 관련 프로그램은 고독감이나 자아상에 작용할 것이며, 자기 조절 기술 프로그램은 자아상 이외에 우울감과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술 요소와 사회적 적응 지표간의 관련은 단순히 일방향적인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차적 예방의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이차적 예방의 의미에서 특정 증상을 호소하는 집단에게 특정한 사회적 기술을 교육할 수도 있다. 즉, 공감과 주장성 혹은 자기 조절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강건하게 미리 대비시켜줄 수도 있지만, 고독감 내지는 사회적 지지감의 결핍을 호소하는 대학생에게 공감과 주장성 훈련을, 그리고 우울감이나 대학생활 부적응을 호소하는 대학생에게는 자기조절 기술 중심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주요한 발달 과업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의 획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Chickering, 1969; Kenny & Denaldson, 1991에서 재인용),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련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기술이 자기 조절이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대학생 시기의 주요 발달 과업 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조절

기술의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서 포함되어야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K-SSRS:대학생용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고르게 갖춘 우수한 평가 도구임이 입증되었으며 개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적절한 사회 기술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항들이 개발되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용성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상 집단 뿐만 아니라 임상군을 비롯한 다양한 범주를 대상으로 한 타당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K-SSRS가 심리학적 개입과의 관련성이 높은 도구임을 고려한다면, K-SSRS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심리학적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 조신권 (1993). 대학생들의 학업적·심리적 적응 : 1년간 추적 연구 I. 연세상담연구. 9, 87-127.
- 김정민 (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성원 (1998).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영, 홍상황, 강덕규, 김영환 (2001). PAI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583-594.
-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민준, 유계준 (1991). 한국에서의 Center

-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의 사용. *신경정신의학*, 30(4), 752-766.
- 유성경, 이소래 (2001). 청소년 비행 수준에 따른 위험 요소 및 보호 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이순목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1-27.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서울 : 학지사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 차원 및 자존감과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홍강의, 김봉석, 신민섭 (1998). 한국판 Offer 자아상 척도 표준화. *대한신경정신의학*, 37, 118-113.
- Achenbach, T., & Edelbrock, C. (1987).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tonuccio, D. O., Danton, W., & Denelsky, G. Y. (1995). Psychotherapy versus medication for depression: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wisdom with data.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6(6), 574-585.
- Baker, R. W., & Siryk, B. (1986).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9-189.
- Brown, L. J., Black, D. D., & Downs, J. C. (1984). *School social skill rating scale*. New York: Slosson Educational Publications.
-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M., Lonczak, H. S., & Hawkins, J. D. (1998).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Retrieved June 22, 2002, from <http://aspe.hhs.gov/hsp/PositiveYouthDev99/>
- Cavell, T. A. (1990). Social adjustment, social performance, and social skills: A tri-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2), 111-122.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 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1), 55-64.
- Cole, D. A., & Milstead, M. (1989). Behavioral correlates of depression: antecedents or consequ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4), 408-416.
- Consortium on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1994).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mezy &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yne, J. C. (1976a). Depression and the response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186-193.
- Demary, M. K., Ruffalo, S. L., Carlson, J., Busse, R. T., Olson, A. E., McManus, S. M., & Leventhal, A. (1995). Social skills assessment: A comparative evaluation of six published rating scales. *School Psychology Review*, 24(4), 648-671.
- Goode E. (2001, January 1). Equal footing/ a special report.; 9 million gaining upgraded benefit for mental care. *New York Times*. Retrieved June 5, 2002, from <http://www.nytimes.com>
- Greenberg, M., T., Domitrovich, C., & Bumbarger, B., (2001). The prevention of mental disorders in school-aged children: current state of the field. *Prevention & Treatment*, 4, Article 1. Retrieved

- June 20, from <http://journals.apa.org/prevention/volume4/pre0040001a.html>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Manual for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merican Guidance Service.
- Kaplan, R. M. (2000). Two pathways to pre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55(4), 382-396.
- Katz, L. G., McClellan, D. E., Fuller, J. O., & Walz, G. R. (1995). *Build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 practical handbook for counselors, psychologist, and teachers*. ERIC Counseling & Student Services Clearinghouse and ERIC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learinghouse.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486.
- King, G. A., Specht, J. A., Schultz, I., & Warr-Leeper, G. (1997). Social skills training for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 preliminary evalu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42(1), 47-60. Abstract retrieved June 29, 2002, from PsyInfo database.
- Lapsley, D. K., Kenneth, G., & Shadid, G. E. (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286-294.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M. Friedman & M. M. Katz (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 157-185). New York: Wiley.
- Matson, J., Rotatori, A. F., & Helsel, W. J. (1983).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to measure social skills in children: The Matson Evaluation of Social Skills in Youngsters (MESS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1, 335-340.
- Moon, S-W. (2001, August). *The effects of computer-mediated social competence promotion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109th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USA.
- Offer, D., Ostrov, E., Howard, K. I., & Dolan, S. (1992). *Self-image questionnaire*. WPS.
- Pear, R. (2001, December 30). Ideas & Trends; Minds Over Money. *New York Times*. Retrieved June 5, 2002, from <http://www.nytimes.com>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 San Diego: Academic Press.
- Russell, D., Peplau, L.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9-480.
- Seligman, M. E. (1998). *Prevention of depression and positive social psychology: Frederick Howell Lewis distinguished lecture*. Invited Address of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Spitzberg, B. H. & Hurt, H. T. (1987). The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kills to reported loneliness across time.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2(2), 157-172.
- Stephens, T. M., & Arnold, K. D. (1992). *Social*

- Behavior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Toward mental health parity. (2002, May 1). New York Times. Retrived June 5, 2002, from <http://www.nytimes.com>.
- Waksman, S. A. (1985), *The Waksman Social Skills Rating Scale*. Portland, OR: ASIEP Education.
- Walker, H. M., & McConnell, S. R. (1988). *The Walker-McConnell Scale of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adjustment*. Austin, TX: Pro-Ed.
- Walker, H., & Rankin, R.(1983). Assessing the behavioral expectations and demands of less restrictive setting. *School Psychology Review*, 12, 274-284.
- Weeks, D. G., Michela, J. L., & Peplau, L. A. & Bragg, M. E. (1980). The 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238-1244.
- Wolf, M. M. (1978). Social Validity: The case for subjective measurement or how applied behavior analysis is finding its heart.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1, 203-214.

원 고 접 수 일 : 2002.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9

계 재 결 정 일 : 2002. 9. 7

K C I

The Validity and Ut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Skill Rating System(K-SSRS: College Level)

Sung-Won Moon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secondary level(SSRS-secon; Gresham & Elliot, 1991). The SSRS was translated into Korean(K-SSRS and administered to two samples of college students. And one sample of the subjects also completed CES-D-K, Loneliness Scale, OSIQ, SACQ. Factor analyses of the K-SSRS resulted in one general factor or four interrelated factors, 1 implying 'empathy', 2 'cooperation', 3 'self-control', 4 'assertion'. K-SSRS correlated negatively with depression and loneliness, and correlated positively with self-image and college adaptation. Implications of social skills in Korea, relation between social skills and adjustment and the planning of preventive intervention were discussed.

Key Word : social skil., reliability, validity, factor acalysis, prevention

K C I

K S I

K C I

K S I